

雇傭職業能力開發研究
 第17卷(3), 2014. 12. pp. 125~150
 © 韓國職業能力開發院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 강화 정책과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련성 분석

이수정* · 조원기**

이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중학교 3학년(2004년) 코호트에 대한 1차 자료(2004년 조사), 4차 자료(2007년 조사, 고 3), 5차 자료(2008년 조사, 대학 1년), 9차 자료(2012년 조사, 대졸)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중이 큰 ‘수시모집’과 ‘특별전형’ 방식을 적용할 때 고 3 학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내신 반영 비중의 강화’가 고교 사교육비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수시모집 학생이 정시모집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입전형에서 수능성적의 비중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일면 효과적인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전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성적 이외의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하는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최근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에 발표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실시할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유발 문제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 주제어: 대학입학전형, 사교육비, 내신 성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투고일: 2014년 07월 30일, 심사일: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2일

* 제1저자(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교수 (sjunglee@dankook.ac.kr)

** 제2저자, 단국대학교 전입학사정관 (artcwk@hanmail.net)

I. 서론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밝힌 「대입전형개혁안(「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과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2013.10)」은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을 강화한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에서 밝힌 것처럼 ‘수시전형은 학생부 위주’로, ‘정시전형은 수능 및 실기 위주’로 간소화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과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교과 성적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재내용을 충실히 할 것’을 천명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수시전형에서는 ‘교과전형(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단위 특성에 맞도록 학생부 반영을 권장함)’과 ‘종합전형(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추천서·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으로 구분하여 오직 학생부의 교과성적 과 비교과 자료만으로써 대입의 전형요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대입전형의 간소화를 의도한 것이다. 실제, 「201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2013.12)」에 발표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인원(207,726명)이 전체 모집인원(379,013명)의 54.8%로서 정시모집 인원보다 많은 것은 기존 보다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자료의 비중이 확대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입전형개혁안은 '9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추구해 온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을 목표로 한 대입전형개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수년 전에 발표되었던 두 번의 대입전형 개혁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1998, 10월 발표)」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월 발표)」은 모두 “대입전형에서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추고 대신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강화하며 기타 다양한 전형요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시험점수 경쟁 완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그 개혁의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이수정, 2011: 122). 이는 2004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월)」이라는 개선안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발표문에

서 수능등급제 도입의 목적을 “치열한 성적 경쟁을 완화”하고 “내신 중심의 대입전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수능 성적의 소수점과 총점 표시 폐지 및 백분위, 표준점수 제공 및 영역별 성적 9등급제 도입, 수능과 학생부 외에 논술, 추천서,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의 이용 확대, 수시모집과 특별전형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시험점수 경쟁 완화’의 정책 의도를 더욱 강화하여 수능성적 자료에서 아예 점수를 폐지하는 대신 영역별 9등급만 제공하도록 하고 학생부 역시 등급제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후 일반전형과 정시모집 위주의 대입전형유형이 다양화되면서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를 대폭 활용’하게 되었다(「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4, 10월; 이수정, 2011: 122~124).

그렇다면, 이처럼 최근 10여년 간 계속되어 온 ‘대입전형에서 수능성적의 비중 약화 및 학생부의 비중 강화’ 정책은 과연 정부의 개혁 정책이 의도한 대로 학생들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효과적이었을까? 이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향후 더욱 바람직한 대입전형제도 확립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입전형제도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이 시도되지 않은 편이었다. 주로 대입전형제도와 사교육비간의 관련성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증적 연구로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교육 비용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소수의 연구들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실제 대입전형방식을 분석에 활용한 연구는 주로 대입전형방식과 입학 후 대학에서의 성적(GPA)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었다. 실제 자료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대입전형방식과 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정책 전후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나 기타 관련 자료가 기존에 많지 않았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최근의 대입전형개혁이 표방하고 있는 ‘학생부 비중 강화’ 정책 등이 실제 그 개혁 정책의 의도대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는 매우 소수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대입전형방식과 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대입전형방식의 변화 전후에 지출된 사교육비를 비교하는 방식이나 동일 시기에 다른 대입전형방식이 적용되는 학생의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는 소수의 연구들, 곧 채창균 외(2009)의 연구와 이수정(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 두 연구는 각각 데이터와 분석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음에도 대입전형에서 수능 비중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 요소의 적용을 유도한 정책이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일반고와 특목고를 따로 분석함으로써 고교 유형 변수의 영향을 더 엄밀하게 통제하지 못한 점, 대입전형제도의 변화나 어떤 대입전형제도 하에 있는가 보다는 각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집전형방식(유형 및 시기)이 무엇인가에 따라 수능 혹은 학생부의 적용 비중이 더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수의 선행연구에서 최근의 대입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된 실증적 분석들이 부족하고, 특히 최근 대입제도 개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입전형에서의 학생부 강화 정책'이 고교 사교육비에 미치는 관계에 대한 더 직접적인 실증적 분석 결과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중학교 3학년(2004년) 코호트에 대한 1차 자료(2004년 조사, 당시 중3), 4차 자료(2007년 조사, 당시 고3), 5차 자료(2008년 조사, 당시 대학교 1년), 9차 자료(2012년 조사, 당시 대학졸업)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수능 비중 약화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으로 개편된 대입제도의 변화가 실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구소득 등의 가정배경이나, 학생 개인 특성과 고교 유형 등의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이 큰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방식의 적용 여부가 2007년 당시 고3 학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교 사교육비 경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분석

최근 수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대입제도개혁은 정권이 바뀐 후에도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며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이수정, 2009, 10월). 앞서 지적했듯이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1998, 10월 발표)」과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2004, 10월 발표)」,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2013.9)」과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2013.10)」까지 '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해 온 세 번의 큰 대입제도 개선안은 모두 '시험점수 경쟁 완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정하고 '대입전형에서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을 낮추는 대신 학생부 및 기타 다양한 전형요소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을 주요 개혁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대입제도개선안들은 '대입전형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대신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을 높이면 학생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의 정상화로 귀결될 것이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 대입제도개선안이 의도했던 정책 목표대로 대입전형에서 수능의 비중을 낮추고 학생부의 비중을 강화할 경우 고교생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향후 대입전형제도의 방향 설정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입전형제도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반면 그동안 대입전형방식을 분석에 활용한 국내 연구는 주로 대입전형방식이 대학입학 후의 학업성취도(GPA)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대학입학전형 방안의 적절성을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대입전형 요소 중에 어떤 전형요소의 성적이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더 잘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모집 시기나 전형 유형 등 전형방식과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결과는 바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수능 성적이나 그

의 대학별 고사 성적 자료보다 훨씬 더 대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이 크다는 점이다 (김미숙·이수정·김성훈, 2008; 박성수, 2007; 강상진, 2001; 지은림, 2001; 허명회와 전성연, 1996).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등 전형 요소별 성적과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전자의 방식 외에 송일근의 연구(2007) 등에서는 모집 시기나 전형 유형이 다른 대학입학전형 방식과 대학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입학전형 방안의 적절성을 탐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송일근의 연구도 2002학년도부터 채택된 수시모집 학생이 정시모집 학생보다 대학입학 후 대학 성적 평점이 더 우수한 것으로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수시모집 전형이 주로 고교 내신 성적 자료를 주요 전형 자료로 삼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교 내신 성적의 대학 학업성취도에 대한 예측력을 보여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입전형제도와 사교육비간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대입제도에 대한 만족도나 교육열과 같은 인식이 학생의 사교육비나 사교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김현진, 2004; 이수정, 2007a, Lee & Shouse). 그러나, 직접적으로 대입전형방식과 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입정책 전후의 사교육비 조사 자료나 기타 관련 조사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데 기인할 것이다.

이처럼 대입전형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최근 십여 년 동안 축적된 교육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이와 같은 분석을 시도한 소수 연구들이 있어왔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입전형제도의 변화가 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대입전형방식이 적용되는 학생의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연구한 채창균 외(2009)의 연구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황에서 대입전형방식의 변화 전후에 지출된 사교육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이수정(2011)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두 연구는 이와 같이 각기 다른 방식의 연구모형을 활용했지만 공통점이 많다. 두 연구는 모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연도별 종단적 자료와 여러 코호트 자료를 병합하여 관련 변수들(개인특성, 가정배경, 학교특성 등)을 통제한 후 2000년대 이후 대입전형방식(정시/수시모집전형, 일반/특별전형, 수능/학생부 비중)의 차이나 변화가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시간,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곧, 두 연구 모두 「2002학년도 대입제도개선안」 이후부터 가속화된 ‘대입전형에서의 수능 비중 약화와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자료의 비중 강화’ 정책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두 연구의 분석 결과 역시 대입전형에서 수능 비중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 요소의 적용을 유도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2002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채창균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2004년 당시 중3 코호트에 대한 2차 자료(2005년 조사, 고등학교 1학년)부터 5차 자료(2008년 조사, 대학교 1학년)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그리고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을 통하여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고교 시절 지출한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특별전형과 수시모집의 도입 및 확대가 사교육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수시모집 입학생의 2005년 당시 고1 학생(2002학년도 대입전형개선안 적용 시기)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정시모집 입학생의 사교육비에 비해 더 적은 것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의 특이한 결과는 일반고와 달리 특목고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교육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으며, ‘수시모집 적용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함’을 보여준 결과를 놓고 이후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해 준 점이다. 이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각각 따로 분석한 채창균 외(2009)의 연구에서 나아가 2007년 이후 자료를 토대로 일반고와 특목고를 합쳐 분석해 봄으로써 학교 유형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에서는 2004년 자료에 특목고 포함 비중이 매우 미미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특목고 고3 학생들에 대한 추가표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기타 채창균 외(2009)의 연구를 모태로 하여 후속 연구에서 시도해 볼만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비가 0인 학생 사례를 모두 포함하면서 발생하는 좌측 절삭값(censoring)과 이로써 생기는 OLS가 가지는 종속변수의 정규분포 가정에 위배되는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토빗(Tobit) 모형의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과 사교육 이용 학생들을 구분·결정짓는 기타의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지출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한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여기서는 고1 학생의 사교육비를 모형에 투입하고 있지만 실제 수시/정시모집과 일반/특별전형으로의 지원 의사는 고1 시절에

미처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시/정시모집'과 '일반/특별전형' 여부가 사교육비에 미친 영향을 추정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고3 시절의 사교육비를 활용한 분석도 새롭게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수정(2011)의 연구는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가 적용되던 고3 학생(2004년 조사)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영향 하에 있던 고3 학생(2007년 조사)의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하여,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화된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수능 비중의 약화와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 요소의 강화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2004년 당시 고3 학생 코호트 자료와 중3 코호트에 대한 4차 자료인 2007년 당시 고3 학생까지의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의 영향 아래 있던 고3 학생(2007년 조사)이 2005학년도 대입전형제도가 적용되던 고3 학생(2004년 조사)보다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수능 비중을 약화시키고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 요소의 적용을 유도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2002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수정(2011)의 연구 역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속 연구의 필요를 생각해 한다. 곧,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사항, 곧 1) 2002학년도 대입전형제도와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가 '수능 비중의 약화'와 '학생부 등 다양한 전형 요소의 확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2)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대입전형제도 중 어떤 전형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보다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모집전형 유형과 시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수능 혹은 학생부 적용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한계가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볼 때 수능 비중의 약화 및 학생부의 비중 강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대입제도의 변화가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석 모형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중3 코호트 2000명 대상 중에서 1차년도(2004년도 조사, 당시 중3), 4차년도(2007년도 조사, 당시 고3), 5차년도(2008년도 조사, 당시 대1), 9차년도(2012년도 조사, 당시 대졸) 추적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계고를 제외한 특목고, 일반고 학생 중 5차년도(2009년)에 대학신입생이 된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도 탈락자와 결측치를 제외한 학생 468명의 응답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이후까지의 추적조사 자료가 포함돼 있어서, 학생의 가정배경 및 개인 특성(내신 성적 등), 고교 입시 상황과 중·고교의 특성(학교소재지, 학교 유형, 학교 교육 특성 등), 중·고교 시절 사교육 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입전형 관련 자료, 곧 대학 입학 시 적용된 전형 방식(일반전형 대 특별전형, 수시모집 대 정시모집)에 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상이한 대입전형방식이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2008) 자료에서 대학 입학 시 적용된 전형형태별 전형유형(일반전형 대 특별전형)과 모집시기별 전형유형(정시전형 대 수시전형)에 대한 자료와 고3 시절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4차년도(2007) 자료에는 당시 고3 시절 월평균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특성(성별, 성적등급, 개인학습시간), 가정배경(가구소득) 및 고교소재지(서울시, 중소도시), 고교유형(특목고, 일반고)의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대입전형방식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통제변수로 적용하였다. 1차년도(2004) 자료를 사용하게 된 것은 4차년도(2007) 자료에서 보호자학력이 공개되지 않아 1차년도(당시 중3)의 보호자학력 자료를 역추적하여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9차년도(2012) 자료에는 졸업한 대학에 입학사정관제를 거쳐 입학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한 문항이 있어서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사교육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추적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다만,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사례수는 22명밖에 되지 않아 본 분석 모형에 따로 구분하여 투입하지는 않았다.

2.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학생의 가정배경과 개인 특성, 고교소재지, 고교유형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대입전형 방식(수시전형 대 정시전형, 일반전형 대 특별전형)의 차이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다음과 같은 변수를 회귀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가. 종속변수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종속변수는 학부모가 조사대상 학생을 위해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KEEP 데이터 5차년도(2008) 조사자료 중 대입준비 사교육 경험 9번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여기서 '사교육'이라함은 정규 학교교육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한 종류의 교육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흔히 "과외"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교육형태, 곧 학원수강, 개인 및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 강의, 학교 내 방과 후 과외, 해외 연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수정, 2007a). 여기서는 2007년도에 고3학생이 보고한 사교육비를 사용했는데 이는 2006년도에 고2학년이었던 학생이 고3이 되던 2007년도까지의 기간에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를 의미한다. 데이터는 5차(2008년)년도 9번 문항의 '사교육에 지출한 총 비용(2007년 3월~12월)은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에 대한 학생의 자기기입식 사교육비용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3 시절 사교육비를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보호자 기입식 자료가 4차년도(2007년) 자료에 있기는 하나, 4차(2007)년도 가구 설문지 조사 시점은 2007년 7월로서 지난 1년간 사교육 비용을 답하는 문항(지난 1년간 학생에 대해 지출한 사교육(창업 또는 취업 훈련비 포함) 비용은 월평균 어느 정도입니까?)이었으며, 2008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역추적한 결과 결측치 10명, 사교육비 0원 97명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편 고3학생이 사용한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 정시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보다 당연히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월평균 사교육비이기 때문에 수시 및 정시 입학

여부로 인한 월평균 사교육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비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수치는 자연 로그(natural log)화하여 사용하였다.

나. 독립변수

1) 학생 개인특성

학생의 개인특성 변수로서, 성별, 내신성적, 고교 내 계열, 개인학습 시간을 사용하였다. '성별' 변수는 4차년도(2007)자료에 있는 120번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여학생을 기준으로 남학생을 1로 더미 코딩하였다.

'내신성적' 변수는 4차년도(2007)자료에 있는 21번 문항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9개 등급(1등급: 성적 백분위 4%이하, 2등급: 4%초과~11%이하, 3등급: 11%초과~23%이하, 4등급: 23%초과~40%이하, 5등급: 40%초과~60%이하, 6등급: 60%초과~77%이하, 7등급: 77%초과~89%이하, 8등급: 89%초과~96%이하, 9등급: 96%초과) 중에서 학생이 등급을 직접 기입하도록 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담임교사가 직접 기입한 학생의 내신등급 자료가 아니라 학생 자신이 보고한 내신등급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4차(2007년)년도 담임교사가 기입한 내신등급을 5차(2008년)년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역추적한 결과 결측치 160명으로 전체 사례수(n=468)에 비해 결측치 값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4차(2007년)년도 학생이 기입한 내신등급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학생이 보고한 내신등급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 연구에서의 분석은 내신성적에 대한 학생의 기억 및 보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분석을 위해 내신성적 등급을 1~9등급으로 기입된 그대로 구분한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상(1~2등급), 중(3~5등급), 하(6~9등급)등급으로 구분한 더미 변수를 투입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중(3~5등급) 등급을 기준으로 상(1~2등급) 등급과 하(6~9등급)등급 더미를 설정하였다.

'개인학습시간' 변수는 4차년도(2007)자료의 14번 문항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학교나 학원수업, 과외시간을 제외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일주일 평균으로 응답받은 자료이다. 분석에서는 학생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시간을 그대로 투입하였다.

'고교 계열'은 5차년도(2008)자료에 있는 3-2)번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예체능 계열을 기준으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로 더미 코딩하였다.

2) 가정 배경 및 지역 변인

가정 배경 변인으로서, 가구소득, 보호자 학력 변수를 사용하였고, 지역 변인으로서, 고교소재지 변수를 사용하여 지역특성의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가구소득’ 변수는 4차년도(2007)자료의 가구설문지 17번 문항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해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값을 그대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보호자학력’ 변수는 1차년도(2004)자료의 가구설문지 6번 문항의 값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취학에서 대학원박사까지 9개 항목, 곧, 1) 미취학, 2) 무학, 3) 초등학교졸업 4) 중학교졸업, 5) 고등학교졸업, 6) 2~3년제 대학, 7) 4년제 대학, 8) 대학원(석사), 9) 대학원(박사)에 응답한 자료이다. 분석모형에서는 미취학과 무학이 구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둘 다 2로 변환하고, 그 외 초등학교졸업 부터는 3 ~9까지의 응답 값을 그대로 투입하였다.

‘지역’ 변수는 ‘고교소재지’를 응답한 4차년도(2007)자료의 2번 문항 값을 사용하였는데, 분석모형에는 ‘광역시’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이 자료가 고교소재지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외국으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서 고교가 소재한 각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분석을 통해 서울 지역과 광역시 지역, 기타 지방의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3) 고교 유형 변인

‘고교 유형’ 변수는 4차년도(2007) 자료에 있는 3번 문항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일반고를 기준으로 특목고 더미를 설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특목고는 외고(92명), 과고(21명), 예체능고(2명), 자사고(3명)이며, 일반고에는 종합고 일반계(15명)와 일반고(335명)를 포함되었다. 종합고 일반계의 경우 일반계와 특성화 학과(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자동차과, 전자과 등)를 함께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함으로써,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학교가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고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때문에 일반고에 그대로 포함하여 분석 모형에 투입하였다. 반면, 전문계고는 일반고나 특목고에 비해 대학입시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였다. 전문계고만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분석을 실시하는 것

이 좋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4) 대입전형방식 변인

대입전형방식 변인은 5차년도(2008) 자료에 있는 14번 문항의 값을 사용하여 '전형 형태별' 전형 유형과 '모집시기별' 전형 유형 변수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먼저, '전형형태별' 전형 유형 변수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특별전형을 1로 더미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모집시기별' 전형 유형 변수는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정시모집을 기준으로 수시모집을 1로 더미 코딩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인 학생의 가정배경과 개인 특성, 고교소재지, 고교유형 변수를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대입전형 방식(수시전형 대 정시전형, 일반전형 대 특별전형)의 차이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분석방법(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단계적 분석 방법은 각 독립변인군이 회귀식에 투입될 때마다 그 각각의 회귀계수와 R² 결정값의 변화량을 잘 보여줌으로써 각 독립변인군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전반적인 변량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이수정, 2007b). 독립변인으로서 대입전형방식을 전형형태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전형시기별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월평균 사교육 비용으로 구분하였다. 통제변인으로서 학생특성과, 가정배경 및 고교소재지, 고교유형의 세 범주로 나눈 변인군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대입전형방식을 추가한 4개의 모형을 구성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대입전형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모형 1에는 학생특성 변인(성별, 내신등급, 고교 계열, 개인학습시간)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는 학생특성에 가정배경(월평균 가구소득, 보호자의 학력)과 지역 변인을 추가하였고, 모형 3에서는 학생특성, 가정배경 및 지역 변인에 고교유형 변인(특목고, 일반고)을 추가하였으며, 모형 4에서는 학생특성, 가정배경 및 지역, 고교유형 변인에 추가로 대입전형방식 변인(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시모집, 수시모집)을 모두 투입하여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기초통계 결과

가. 변인의 기술통계값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강화 정책과 고교 사교육비와의 관계분석을 위해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과 같다.

<표 IV-1> 회귀식에 사용된 변인의 기술 통계값(n = 468)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월평균 사교육비^a	0	5.70	3.27	1.00
학생특성				
성별 (1=남자: 0=여자)	0	1	.36	.48
내신성적 등급	1	8	3.61	1.38
내신성적 상위(1~2등급) (1=내신상위: 0=기타)	0	1	.21	.41
내신성적 하위(6~9등급) (1=내신하위: 0=기타)	0	1	.08	.27
인문 계열 (1=인문계열: 0=기타)	0	1	.53	.50
자연 계열 (1=자연계열: 0=기타)	0	1	.38	.49
개인학습시간	0	80	19.94	16.38
가정배경				
월평균가구소득	80	2000	431.08	242.47
보호자학력	2	9	5.70	1.34

<표 계속>

변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역(고교소재지)				
서울특별시 (1=서울시: 0=기타)	0	1	.20	.40
지방 중소도시 및 읍면 (1=중소도시: 0=기타)	0	1	.47	.50
고교유형				
특목고 여부 (1=특목고: 0=일반고)	0	1	.25	.43
대입전형방식				
특별/일반 전형 (1=특별전형: 0=일반전형)	0	1	.15	.36
수시/정시 입학 (1=수시모집: 0=정시모집)	0	1	.37	.48

(a)단위: 10,000원(로그화된 단위)

<표 IV-1>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될 KEEP 데이터 1차년도(2004년), 4차년도(2007년), 5차년도(2008년), 9차년도(2012년) 자료에서 추출한 표본의 특성을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사교육비 결정모형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될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의 사교육비와 전체 설명변수에서 탈락자와 결측값을 제외한 학생들만 추려낸 결과, 총 468명의 표본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68명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38.98만원으로 나타났다.

학생특성으로서, 성별은 남자 36%, 여자 64% 비율로, 내신등급은 평균 3.6등급내외로 나타났고, 개인학습시간은 일주일 평균 19.9시간으로 나타났다. 고교 계열은 인문 계열이 53%, 자연 계열이 38%, 기타 예체능 계열이 8%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평균 431.08만원이며, 보호자의 학력은 2~9의 값 중에서 5.7의 중간 정도의 값이 평균으로 나타났다. 고교소재지 비율은 각각 서울특별시가 20%, 광역시가 33%, 중소도시 및 읍면이 47%이며, 고교 유형별로는 특목고 25%, 일반계고 75%로 나타났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각각 85%, 15%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전형시기별로 구분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은 각

각 37%대 63%로,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다.

나. 입학한 대입전형방식별로 고교 시절 사교육 이용 정도 비교

다음의 <표 IV-2>는 대입전형방식 곧, 대입전형유형(일반전형 대 특별전형)과 대입전형시기(정시모집 대 수시모집)별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전형방식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고교 3학년 당시의 월평균 사교육비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2> 대입전형방식별 평균 사교육 비용 (n = 468)

(단위: 만 원)

구분	전형형태		전형시기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모집	정시모집
사례수	397	71	175	293
사교육비	39.02	38.73	33.87	42.03
평균	38.98			

주: 입학사정관전형 학생의 사례 수는 22명이며 사교육비 평균은 27.25원

먼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고3 당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비교해보면, 일반전형 입학생은 39.02만원, 특별전형 입학생은 38.73만원으로, 사교육비의 차이는 거의 없어 보인다. 한편, 특별전형에 속하는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생의 사교육비는 27만원으로서 일반전형 입학생의 사교육비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례수가 22명밖에 되지 않아 사교육비 지출에 관해 논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음으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곧,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교육참여 학생이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사교육참여 학생보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약 8만 원 정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학입학전형별로 사교육의 과목별 이용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IV-3]과 같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그리고 수시모집 전형과 정시모집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고교 시절에 가장 오래 한 과목별 사교육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 여기서는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가장 오래 한 과목별 사교육의 종류만을 대표적으로 제시한다. 왜냐하면 고교 시절에 가장 오래 한 사교육의 종류(과목별 종류)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일반/특별전형, 정시/수시모집전형의 구분과 상관없이 어떤 대입전형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했든지 간에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분석해 보았다. 이는 각각 고교 시절에 과목별로 가장 오래 한 사교육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데 대한 응답으로서, 가장 오래 한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응답자 빈도를 나타낸다. 고교 시절에 가장 오래 한 사교육의 종류(과목별 종류)는 어떤 대입전형방식으로 대학에 입학했는가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곧, 일반전형, 특별전형, 수시모집전형, 정시모집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모두 국어 과목의 경우, 학원수강>EBS특강을, 수학 과목의 경우 학원수강>개인과외>EBS특강을, 영어 과목의 경우 학원수강>EBS특강>개인과외의 순으로 사교육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 어떤 대입전형 방식으로 준비하는가 하는 문제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대체로 교과목 구분 없이 학원수강과 EBS특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가장 오래 한 과목별 사교육의 종류

(단위: 명, %)

일반전형 입학생 (n=397)	국어·언어·논술	수학·수리	영어
1. 학원수강	101(31.96)	103(34.22)	88(29.63)
2. 개인과외	23(7.28)	79(26.25)	63(21.21)
3. 그룹과외	14(4.43)	18(5.98)	17(5.72)
4. 학습지	6(1.90)	4(1.33)	3(1.01)
5. 유료인터넷/통신과외	34(10.76)	40(13.29)	45(15.15)
6. 학교 내 방과 후 과외	16(5.06)	3(1.00)	2(0.67)
7. EBS 특강	121(38.29)	54(17.94)	79(26.60)
8. 기타	1(0.32)	0(0.00)	0(0.00)
합계	316(100)	301(100)	297(100)

주: 사교육을 받은 시기는 고 3 시절로서 2007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임

2. 대입전형방식이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다음의 <표 IV-4>는 대입전형방식의 차이가(정시모집 대 수시모집전형, 일반전형 대 특별전형)고 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4 개의 독립변인군(학생특성, 가정배경 및 지역, 고교특성, 대입전형방식)의 고 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4> 대입전형방식이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n=468)

	모형1 학생특성	모형2 가정배경, 고교소재지 추가	모형3 고교특성 추가	모형4 대입전형방식 추가
	β	β	β	β
학생특성				
성별 (1=남자: 0=여자)	-.022	-.039	-.050	-.044
성적등급	-.070	-.042	-.040	-.051
개인학습시간	.020	-.059	-.047	-.046
가정배경				
월평균가구소득	-	.150**	.153**	.148**
보호자학력	-	.087	.090	.089
지역(고교소재지)				
서울특별시	-	.275**	.272**	.257**
지방 중소도시 및 읍면	-	-.077	-.068	-.073
고교유형				
특목고 여부 (1=특목고: 0=일반고)	-	-	.078	.091
대입전형방식				
특별/일반 전형 (1=특별전형: 0=일반전형)	-	-	-	.064
수시/정시 입학 (1=수시모집: 0=정시모집)	-	-	-	-.112*
R^2	.006	.161	.164	.174

**p ≤ .01 * p ≤ .05

<표 IV-4>는 고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변인들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성된 4개의 모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인의 사교육비에 대한 고유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대입전형방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이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의 d값은 1.909로서 오차간 자기상관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형 1에서는 학생특성 변수의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배경과 고교소재지가 추가된 모형 2에서는 보호자학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월평균가구소득과 고교소재지 중 서울특별시(β : .275, p = .000)는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설명량도 모형 1의 설명량이 0.6%에 비해 경증 편 16.1%로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보여준 값과 유사하다. 곧,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고교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을수록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고교유형을 추가 투입한 모형 3은 전체변량의 16.4%를 설명하고 있으나 고교유형인 일반고와 특목고의 차이에 따른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대입전형방식을 추가 투입한 모형 4는 수시모집전형 입학생이 정시모집전형 입학생보다 고3 시절 사교육비를 덜 지출한 것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음을 보여준다(수시모집 β 값: -.112). 이 모형에서는 대입전형방식변수를 추가할 때 월평균가구소득 및 서울특별시 변수의 고3 사교육비에 대한 회귀계수가 줄어준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입전형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고교생의 사교육비를 결정짓는 가정배경 변수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축소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반면 일반전형인지 특별전형인지 여부는 고3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IV-5>는 학생의 내신 성적을 상(1~2등급), 중(3~5등급), 하(6~9등급)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투입하고, 학생의 계열을 구분한 변수를 투입하여 추가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해 본 것이다. 그 외 고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의 변인들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성된 4개의 모형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변인의 사교육비에 대한 고유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은 위의 <표 IV-4>와 같다. 잔차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Durbin-Watson의 d값은 1.873로서 오차간 자기상관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IV-5> 대입전형방식이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n=468)

	모형1 학생특성	모형2 가정배경·고교 소재지 추가	모형3 고교유형 추가	모형4 대입전형방식 추가
	β	β	β	β
학생특성				
성별 (1=남자: 0=여자)	-.013	-.036	-.045	-.040
내신상위 등급(1~2등급)	-.103*	-.058	-.055	-.067
내신하위 등급(6~9등급)	.001	.013	.015	.017
인문계열 (1=인문계열: 0=기타)	-.314**	-.224**	-.217**	-.206**
자연계열 (1=자연계열: 0=기타)	-.288**	-.195*	-.193*	-.179*
개인학습시간	.047	-.033	-.023	-.022
가정배경				
월평균가구소득	-	.145**	.147**	.142**
보호자학력	-	.079	.080	.079
지역(고교소재지)				
서울특별시 (1=서울시: 0=기타)	-	.272**	.269**	.257**
중소도시 (1=중소도시: 0=기타)	-	-.062	-.054	-.058
고교유형				
특목고 (1=특목고: 0=기타)	-	-	.078	-.089
일반고 (1=일반고: 0=기타)	-	-	.115	.131
대입전형방식				
특별전형 (1=특별전형: 0=일반전형)	-	-	-	.056
수시입학 (1=수시모집: 0=정시모집)	-	-	-	-.104*
R^2	.039	.176	.178	.187

** p ≤ .01 * p ≤ .05

내신 성적을 상(1~2등급), 중(3~5등급), 하(6~9등급)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투입하고, 학생의 고교 계열을 구분한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본 분석 결과에서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체능 계열의 학생 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학생이 사교육비를 덜 지출했다는 점, 특히 인문계열의 학생이 더 적게 지출했다는 점과 내신 성적이 중·하 등급에 비해 상위 등급일 경우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유의한 회귀계수값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과 고교 계열 변수가 학생 특성 변수로 추가될 경우 학생 특성 변수의 사교육비에 대한 설명량이 0.6%였던 것에서 3.9%로 상당히 증가한 점에서도 계열 변수와 내신 성적 변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변수에 대한 영향력이나 기타 사항은 앞서 제시된 <표 IV-4>의 분석 모형에 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10여년 간의 대입전형제도 개혁, 곧 '사교육비 경감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여 '수능 비중 약화와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지향해 온 대입정책이 실제 그 의도한 대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완화시켰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대입전형방식이 학생부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할 경우 고교생의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실증적 분석모형으로서 학생부 자료 중심의 대입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모집전형'과 '특별전형' 여부 변수가 고3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곧,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배경, 학생특성, 고교유형 등의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이 큰 수시모집과 특별전형 방식의 적용 여부가 그러한 대입전형을 준비하던 2007년 당시 고3 학생의 사교육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강화하는 정책이 고교생의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 근거로서, 먼저,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배경(가구소득, 보호자학력), 학생특성(내신성적, 개인학습 시간, 성별, 고교 계열), 고교 유형(일반고/특목고) 및 지역 등의 변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중이 큰 수시모집 입학생이 정시모집 입학생에 비해 고3시절에 지출한 사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이 결과는 '학생부의 성적 자료나 기타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가 주요한 전형요소가 되고 있는 '수시모집전형'이 '수능성적' 자료가 중심이 되고 있는 '정시모집전형'에 비해 고교생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월평균가구소득 및 서울특별시 지역 변수가 고교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상당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임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검증되어 온 가정배경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지대한 설명력이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의를 끄는 사항은 대입전형방식(수시모집 대 정시모집, 특별전형 대 일반전형)변수를 추가할 때 월평균가구소득과 서울특별시 지역 변수의 고3 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회귀계수가 줄어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대입전형방식이 어떠한지에 따라 고교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가정배경 변수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음을 한번 더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입제도의 개선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추진 과제이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채창균 외(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에 있어서는 고교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유의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특별전형이 일반전형에 비해 다양한 전형 요소가 고려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나 기타 다양한 전형 요소의 활용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사례가 이 연구에서 분석한 특별전형 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되 학생부의 성적과 기타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를 어떻게 전형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사교육비 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수시로 지원했기 때문에 나타난 분석 결과일 수도 있는 문제점을 통계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법도 후속연구에서 활용해서 이 연구

* 5차년도 자료(2012년 조사)를 통해 확인함.

의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또는 대학별로 수시지원방식이 다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이 더 큰 수시전형을 준비한 학생은 정시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보다 고교 시절에 사교육비를 더 적게 지출했다는 점이며, 이로써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자료의 반영 비중이 클 경우 고3 학생의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 등 다양한 전형 자료를 활용할 경우 활용 방식과 사교육비 경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사 자료의 보완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생부 강화'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에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201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에서 발표한 '학생부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은 207,72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79,013명)의 54.8%가 되어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시행계획에 발표된 대입전형의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전형'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교과전형'이 교과 성적을 주요한 전형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의 비교과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유발 문제와 관련하여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곧, 고등학생의 고교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전형요소로서 학생부의 비교과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마련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상진(2001) 「대학입학 전형요소의 준거관련 타당도 추정방법 비교분석」, 『교육평가연구』, 제14권 제1호, 171~197쪽, 한국교육평가학회.
- 김미숙·이수정·김성훈(2008). 『고교-대학연계를 위한 대입전형연구(V)-대입 전형 요소와 대학수학능력의 관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현진(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박성수(2007). 「대학입학 전형요소와 대학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제34권 제4호, 27~56쪽, 한국교육개발원.
- 송일근(2007). 『대입전형요소와 대학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2007a). 「명문대 중심 대입관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 분석 : 사교육 원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4호, 455~484쪽, 한국교육행정학회.
- _____(2009. 10).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전형 요소와의 관계 탐구 : 미국 대입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2009 추계 한국교육학회(비교교육분과학회) 발표논문, 31~49쪽.
- _____(2011). 「대입제도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0권 제1호 127~147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지은림(2001). 「대학전형의 다양화를 위한 전형자료들의 예측타당도 분석」, 『교육평가연구』, 제14권 제2호, 155~172쪽.
- 채창균·유한구·류지영·이수정·장석환(2009). 『대입정책의 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009년 정책연구개발사업 연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 채창균·유한구(2009). 사교육 경쟁, 바람직한가? - 사교육 무한경쟁과 교육생산성, 교육연구와 실천.
- 채창균·이재경(2009). ‘특목고와 사교육’,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527~538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3.9).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_____ (2013.10).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

_____ (2013.12). 2015학년도 대학입학 시행계획 주요사항.

허명희·전성연(1996). 「입학선발지표와 대학 학업성취도의 관련성」, 『교육학연구』, 34, 5, 299~309쪽, 한국교육학회.

Lee & Shouse(2011). The Impact of Prestige Orientation on Shadow Education in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Vol.84 No.3.

Abstract

The Impact of the College-admission System Focused on
High-school GPA on Korean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Lee Soojeong

Cho Wonk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college-admission system focused on high-school GPA influences Korean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1st~9th waves).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examine whether the college-admission system focused on high-school GPA was effective in reducing Korean parents' expenses on private tutoring services for their high-school children.

Findings showed that students, who were admitted through the college-admission system that high-school GPA was applied as a major criterion, had spent less money on private tutoring services in high school days than those admitted through the system that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was applied. The findings imply that the college-admission system, where high-school GPA is a major criterion for admission decision, is effective in reducing high-school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Key words: college-admission system,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 high-school GPA,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riteria for college admission